

# '꿈의 무용단 n 완주' · '꿈의 극단 완주' 시작

완주문화관광재단, 아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은 아동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무용단'과 '꿈의 극단'이 2026년도 정규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은 아동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의 무용단'과 '꿈의 극단'이 2026년도 정규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꿈의 무용단 n 완주' 29명과 '꿈의 극단 완주' 31명의 단원이 최종 선발됐으며, 단원들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정기교육과 심화수업, 여름캠프, 현장학습, 공연 연습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연말 정기공연을 통해 한 해 동안의 교육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꿈의 무용단 n 완주'는 '완주의 세계'를 주제로 운영된다. 단원들은 만경강과 논밭 등 만주의 자연과 계절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감각을 확장하고, 자신만의 움직임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완주만의 레퍼토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꿈의 극단 완주'는 놀이 중심의 연극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너, 그리고 관계'를 주제로 사람과 환경, 사물 등 모든 존재와의 관계 맺음을 탐구한다. 특히 단원들은 연기뿐 아니라 대본 창작, 연출, 무대 제작 등 공연 제작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는 "참여

단원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자기표현력과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술가로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군산항1981서 즐기는 특별한 여행 추억

군산문화관광재단, '여행자 원데이클래스' 운영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임준)은 한국관광공사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군산항1981에서 '여행자 원데이클래스(이하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자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편의와 로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클래스는 △군산항1981 테라리움 만들기(대표 클래스) △군산여행 키링 만들기 △여행의 감정을 담은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군산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며 여행의 여운을 깊게 남길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입문 과정으로 준비되어 부담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군산=김민호 기자

<b>주요 참여대상</b> 군산 여행객 군산항1981 방문객	<b>참여방법</b> 군산항1981(군산종합관광안내소) 1층 교육실 신청	<b>운영기간</b> 2026년 5월 ~ 11월
<b>참가비</b> 관객 무료	<b>모집인원</b> 회차 당 15명	<b>프로그램</b> 군산 여행 이야기, 추억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문의 | 관광편의점 063-443-4824

김제문화예술회관서 28일 어린이 창극 '별주부와 시간의 섬' 공연

5월 가정의달 시리즈 3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창극 '별주부와 시간의 섬'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김제시와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죽은에트(etre)'가 김제시민과 관객을 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숲속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짙어진 집중 호흡을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3단계 미션으로 구성돼, 관객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으로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함께 만드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미디어아트 교육 · 공예 체험 운영

정읍시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예술 기반 시설(아트플랫폼) 시업예술창고(내장산로 284)에서 시민들을 위한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교육과 공예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미디어아트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 5명을 선발해 관련 기초 이론을 배우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창작 실습 과정으로 꾸러진다. 해당 교육 수강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예 체험 행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 운영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마다 10명씩 모집한다. 아크릴 조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 매월 20일에 접수를 받는다. /정읍=김태희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10)

## 남준이지?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장구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명희는 귀를 더 바짝 세웠다. "그러게요 저 멀리서 장구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명희가 집주인에게 장구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주인은 동해원 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끔 저 문둥이 마을에서 장구나 쾅과리를 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요." "언제부터요?" "오래 되었어요. 한 10년도 넘는 것 같아요. 문둥이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소리가 제법 치는 사람 같더라고요. 쯤쯤쯤. 문둥병만 아니었으면 뎡쟁이 나 할 사람 같은데....." 명희는 그 사람을 봤느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 마을에서 달걀을 팔고 있는나 등을 물어봤고 주인은 문둥이라 얼굴이 너무 얇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나이도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젊은 사람 같다고 했고 동해원에서는 닭과 돼지를 키우는 데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을 통해 파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희는 가슴이 먹먹했고 괜스레 눈물이 났다. 장구소리의 주인은 남준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장구 가락은 남준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락이었다. 명희는 새벽에 굿이 끝난 뒤, 주인에게 동해원에서 달걀을 사고 싶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고, 주인은 집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와 동해원에서 직접 달걀을 가져다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명희는 새벽에 굿이 끝난 뒤, 주인에게 동해원에서 달걀을 사고 싶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고, 주인은 집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와 동해원에서 직접 달걀을 가져다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와 같은 것이었다. 명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아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여지기도 했다. 이런 흉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서,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말인가. 스스로 자책도 했다. 하지만, 하지만 명희를 보고 싶었다. 남준 자신의 몰골이야 어떻지만 그냥 그녀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남준은 그날 오후 달걀 꾸러미를 우마차에 싣고 용산리 연기마을로 향했다. 여러 생각들과 감정이 교차해서 남준은 연기마을로 가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 연기마을로 들어갔으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남준의 흉한 얼굴을 보고 급히 남준을 피해갔다. 길가에 서 있으면 오히려 명희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명희 집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호호호." 순옥이 문을 열어주며 남준을 맞이했다. 남준이 집에 들어서자 마투에 명희가 앉아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명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준은 달걀꾸러미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섰고 쪽진 머리에 연두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명희를 봤다. "남준..... 이지?" 남준은 목이 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명..... 히..... 야." 명희는 앞으로 걸어 나와 남준 앞으로 다가왔다. 순옥이 얼른 남준에게서 달걀 꾸러미를 받았다.

###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